


# 세계총회(2020년 WC) 부의장 지원서

	<b>한글 성명</b>	<b>생년월일</b>
	손 인 태	1990-06-03
	<b>영문 성명</b>	<b>주민번호</b>
Son In-tae	900603-	<b>학교 및 학년</b>
		삼육대학교 약학과 4학년

## 공통 의무사항

### 1) 2020 WC 종료 시점까지 KNAPS 회원 자격 유지

-2017 년 상반기 정회원 가입과 동시에 사무국 STAFF으로 KNAPS 일원이 되었고, 2017-18 1년간 문화정보국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SEP팀에서 활동 중입니다.

현재 삼육대학교 약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며, KNAPS 회원은 졸업 후 4년까지 유효하므로 "2020 WC 종료 시점까지 KNAPS 회원 자격 유지" 할 예정입니다.

### 2) 영어로 업무 및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토익 925점

2016년 삼육대 약학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토익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입학 당시 사실확인이 되어 현재 삼육대 약학과에 재학중입니다.

삼육대학교 입학원서(영어 토익 증명용).JPG 첨부하였습니다.

-2017-18 문화정보국장으로서 일본 학생들과 KNAPS-APS Japan 약학협업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의 단톡방을 개설하여, 약학협업기사의 방향성을 잡고 기사를 본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일본학생들의 영어로 된 기사를 읽고, 한국학생들의 영어 기사들을 직접 읽고 수정하며 각 나라의 기사들이 하나의 방향성으로 갈 수 있도록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였습니다.

<http://www.knaps.or.kr/171>, "한국과 일본의 메디컬 팀과 닥터 헬기"

<http://www.knaps.or.kr/167> “한국과 일본의 주요 제약산업 현황”

<http://www.knaps.or.kr/151> “한국, 일본에서의 약사의 역할”

<http://www.knaps.or.kr/129> “한국과 일본 약대의 입시제도와 교육과정”

추가적으로, 2018 한국 SEP Incoming 에서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참여자들(독일, 슬로베니아, 프랑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소통하며 SEP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왔습니다. 또한, 꾸준히 영어회화 참여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World street English 에서도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Upper Waystage Level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PPS 활동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였고 특히나, International night에는 한국 행사 부스를 각 나라의 학생들에게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등 APPS 참여 학생들과도 꾸준히 연락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Vice-Chairperson) 의무사항

- 1) KNAPS 한 학기 이상의 임원 및 스태프 경험 또는 2016 Asia Pacific Pharmaceutical Symposium Committee 구성원

-2017 년 상반기 정회원 가입과 동시에 사무국 STAFF으로 KNAPS 일원이 되었고, 2017-18 1년간 문화정보국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SEP팀에서 활동 중입니다.

- 2) 1회 이상의 IPSF event 참가경험

2018 8월 18일-24일 Yamanashi, Japan에서 진행된 APPS에 참가하였습니다.

[Invitation letter 2018 APPS in Japna.pdf](#) 첨부하였습니다.



## 후보자의 지원동기

'KNAPS 회원이기 때문에' WC 세계총회 일원으로서 지원하였습니다. 6개월 동안 사무국원, 1년 동안 문화정보국장 그리고 현재 SEP 팀의 일원으로서 많은 KNAPS 회원들을 만나고 많은 KNAPS 행사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였고 KNAPS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각 국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각 국들의 발전을 보면서 'KNAPS의 일원으로서' 단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많이 생각해보았습니다. 2020 WC 세계총회가 제가 몸담고 있는 KNAPS에서 주최하기에, 제가 생각하고 변화시키고 싶은 것들을 그 기회를 통해 이루고 싶습니다. 저라는 한사람으로부터 시작해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고, KNAPS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내고 싶습니다.

'제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소통하고 싶은 사무국 일원으로서 지원하였습니다. 작년 하반기 KNAPS에서 진행된 교환학생 Outgoing을 일본으로 다녀왔습니다. 교환학생을 통해서 일본 약학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 약학 학생들과 교류하며 진실된 생각까지는 소통을 할 수는 없었지만 같이 많은 시간과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각 나라를 넘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일본의 친절한 문화를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라는 한 사람이 '한국과 각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를 주었습니다. 저 또한 세계총회의 사무국 일원이 되어 한국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이며,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한국 문화를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설 수 있는 두 다리가 있기에' 참가자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사무국 부의장에 지원하였습니다. 작년 겨울 교통사고를 당해 왼쪽 다리를 3개월간 통깁스를 하였습니다. 오른쪽 다리밖에 쓸 수 없었고, 두 팔은 목발을 짚느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KNAPS 스노우보드 캠프와 KNAPS 와인행사 등 문화정보국 국장으로서 진행해야 할 제 임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한 다리로 직접 뛰어다녔습니다. 주류 박람회를 직접 돌아다니며 와인 수입사들을 컨택하고, 스키 리조트들을 직접 방문하여 행사의 마무리 짓는데 노력했습니다. '제 일들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의 오른쪽 다리' 덕분에 행사들은 잘 마무리 할 수 있었고 국장임기 1년동안 행사들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치하여 '뛰어 다닐 수 있는 두 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세계총회에는 더욱더 열심히 참가자들과 WC 진행 스태프들과 소통할 수 있기에 2020년 WC 부의장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후보자를 세 단어로 표현한다면

'적극적인 사교성'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세' 그리고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며 자라왔고 동아리,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등 여러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제겐 '아줌마'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먼저 다가가며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 덕분에 생긴 별명입니다.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았고, CGV에서는 남들보다 빠르게 성장하여 2개월만에 CGV 판매왕이 되었습니다. '당당한 말투와 밝은 미소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항상 먼저 다가가' 고객들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인 고객, 가족단위 고객 등 제 나름에 기준을 세워 적합한 메뉴를 선정해 주었고 고객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다양하게 경험하고 나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약학 분야가 너무나 흥미로웠고, 그 계기로 군복무 기간동안 수능을 통한 약학분야 진학을 결정하였습니다. 군대라는 제한된 공간과 시간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해보자'는 마음으로 공부하였습니다. 5시부터 기상하여 새벽시간을 활용하였고 근무 시간을 충실히 수행한 뒤 자유타임을 활용해 공부하였습니다. 월급을 이용하여 책을 구매하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스스로 제 꿈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는 기간동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지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감사함을 가지고 노력하였고 제대 한 달 후 수능을 봐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문화정보국 국장으로서, KNAPS 회원들에게 새로운 문화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약업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KNAPS 스노우보드 캠프와 KNAPS 무비데이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드 캠프를 기획하기 위해서 스키 리조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기관에 컨택을 진행하였고,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성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사전견학을 통해서 예산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KNAPS 회원들이 즐겨하는 문화생활이 영화라는데 초점을 맞춰, 부천국제영화제에 직접 컨택하여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KNAPS 와인 클래스 또한 기존의 것들의 장점을 유지하되, KNAPS 회원들이 원하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주류 박람회 통한 와인 수입사를 컨택하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어다녔고, 와인 소믈리에를 섭외하게 위해서 다양한 기관, 와인 동아리를 통해 수소문하였습니다. KNAPS회원분들에게 만족스러운 행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천적인 자세로 항상 새로운 것들을 찾고 시도'하는 '도전적인 자세로' 성공적으로 KNAPS 스노우보드 캠프를 개최하였고 KNAPS 무비데이를 통해 회원들에게 무료 관람권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믈리에 와인 강사님을 통해 전문적인 강의력을 보완하고 고급 와인과 음식들을 제공하여 와인행사 브랜딩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 후보자가 2020년 World congress 부의장이 된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와 '한국을 대표하는 약학'을 보여 줄 것이며, KNAPS회원들과 세계총회에 참여하는 전 세계 약대생 간의 '융합이 될 수 있는 소통의 창'을 만들 것입니다.

한국의 과거, 현재를 보여 줄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데 힘쓸 것입니다. 강남의 전통주 갤러리, 인사동의 김치 박물관에서는 한국의 전통주 문화, 한국의 차 문화, 한국 예절 교육, 김치 담그는 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참여를 통해 '한국의 전통'을 보여 줄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가장 애용하는 관광 앱인 tripadvisor을 보면 한국인들은 자주 방문하지 않거나, 가지 못했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자주 방문하는 곳은 국립중앙 박물관과 용산의 전쟁기념관 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새롭게 느끼기 때문에 더욱 호기심을 많이 가지며 방문한다고 합니다. DMZ와 더불어 역사 박물관 방문을 통해 '한국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K-POP과 K-drama등 '젊은 층들이 즐기는 한국의 문화'를 Welcoming 파티, KNAPS Waterbomb에서의 공연을 통해 보여주고, K-POP 댄스배우기를 통해 직접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영화 관람실 공간을 만들어 학생들의 자유시간 동안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약업계를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제약 박람회'를 함께 기획하고 싶습니다. 제약회사들에 컨택하여 각 회사별로 어떤 약들이 개발되고 판매되는지, 한국의 대표적인 약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람회를 통해서 '한국의 제약산업'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 WC에서 진행되었던 좋은 워크샵과 심포지움들을 한국 WC에도 잘 반영하고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워크샵도 함께 진행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한약 만들기, 한국의 대표적인 약 만들기 등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 더 기억에 남는 워크샵을 만들고 싶습니다.

Welcoming party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의 장으로 참가자들을 초대하고, KNAPS Waterbomb과 다양한 소셜 행사를 통해서 한국 학생들과의 소통의 장을 만들고 International night, Gala night에서 전 세계 약대생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융합의 장을 만들 것입니다. Welcoming party가 행사의 첫 단추를 끼우는 만큼 K-pop, 풍물놀이와 같은 한국만의 문화를 보여 줄 것이며, 한국의 전통 음식을 통해서 한국의 음식문화를 소개하며 한국의 멋스러움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워크샵과 심포지움 행사 중간에 뮤직페스티벌 KNAPS Waterbomb과 다양한 소셜 행사를 모든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International night과 Gala night을 통해서 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KNAPS에 들어와서 정말 많은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부의장 후보로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이루고 싶은 꿈, '전 세계의 약학에 몸담고 있는 친구들과 평생을 소통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것'을 2020년 WC 세계총회를 통해 이루고 싶습니다. "2020년 WC 한국인, 외국인 참가자 모두가 친구가 되고, 한국에 오는 모든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리워 할 수 있는 친구의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